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시점 언급 없고 노동 시장 리스크 증가 우려
- Bloomberg: 엘런 재무장관, “노동 시장의 인플레이 압력 약화됐다”며 파월 의장 입장 확인

[미국 금융]

- CNBC: 국채 금리 하락...파월의 장기간 고금리 우려 발언 후

[미국 생활]

- Bloomberg: 뉴욕시 등 대도시 아동들, 소도시로 옮긴다
- WSJ: 미국인 근로자 이직 줄어든다

[미중 관계]

- Bloomberg: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우회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 관세 추진

[주택]

- CNBC: 모기지 채용자 수요 계속 하락

[에너지]

- Bloomberg: 미 천연가스 가격 올 하반기에 오른다
- WSJ: OPEC, ‘석유 수요 전망 안정적, 더 빠른 경제 성장 기대’

[중국 경제]

- WSJ: 중국, 소비자 물가 미지근하고 공장 출고가도 하락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소매업체들의 ‘선택의 폭 줄이기’ 전략
- WSJ: 달려 제너럴, 공급망 단순화로 재고 관리 강화
- Bloomberg: 위워크, 맨해튼 오피스 타워에 공용 업무 라운지 오픈 예정
- CNBC: 월마트, 5개의 자동화 유통 센터 오픈 예정
- WSJ: MS, OpenAI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규제 당국의 조사 영향

[미국 경제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7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Powell Flags Rising Risks to Jobs While Avoiding Rate-Cut Timing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시점 언급 없고 노동 시장 리스크 증가 우려

-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관리들은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고, 높은 차입 비용로 인한 노동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파월 의장은 어제 상원 은행 위원회에 출석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투자자들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그는 최근 3개월 연속 실업률이 상승한 후에 일자리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높은 물가가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리스크는 아니라면서 최근 노동 시장의 여건이 2년 전보다 상당히 냉각된 지표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Yellen Echoes Powell Saying Labor Market Now Less Inflationary

옐런 재무장관, “노동 시장의 인플레이 압력 약화됐다”며 파월 의장 입장 확인

-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노동 시장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를 더 이상 야기하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의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다.
- 그는 일자리 시장이 팬데믹 회복 기간에 매우 타이트했지만 이제는 인플레이를 우려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인력의 공급 증가 후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밝혔다.
- 실업률은 2년여 동안 처음으로 4%를 상회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yields retreat as Fed Chair warns on keeping rates elevated for too long

국채 금리 하락...파월의 장기간 고금리 우려 발언 후

-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인 고금리는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약간 하락 중이다.
- 10년물은 2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278%로 나타났으며 2년물은 4.606%로 거래되고 있다.
- 한편 파월 의장은 어제 화요일에 최근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와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정책과 관련해 “제약

적인 통화의 축소 정책을 너무 늦게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이 아주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Urban Family Exodus' Continues With Number of Young Kids in NYC Down 18% 뉴욕시 등 대도시 아동들, 소도시로 옮긴다

- 미국인 가족들이 대도시를 떠나고 있다. 팬데믹 시작 이래로 뉴욕시 아동 숫자가 거의 20%는 줄어든 것으로 최근 센서스 조사 결과 나타났다.
- 지난 2020년 4월 이래 5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 뉴욕시는 18% 감소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Cook 카운티는 1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14%로 나타났다고 Economic Innovation Group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물론 이러한 소도시로의 탈출은 감소세이지만, 팬데믹 여파로 인해 여전히 큰 도시를 떠나 소도시와 교외 지역, 시골로 이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 Workers Have Quit Quitting, for Now 미국인 근로자 이직 줄어든다

- 최근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팬데믹 기간에 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으나 최근에는 이직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 또한 이직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현 일터에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 Robert Half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성인 근로자의 35%가 올해 하반기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작년의 49%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 또한 메트라이프가 2천8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의 69%에서 상승한 것이다.

WSJ 기사

[미중 관계]**Bloomberg: US Targets China With Tariffs on Steel, Aluminum Sent Via Mexico****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우회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 관세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기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해 우회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이 조치에 따르면 멕시코나 미국, 캐나다에서 녹여 만들어지지 않은 멕시코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인 Lael Brainard는 밝혔다. 이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중이다.
-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또는 벨라루스에서 주조되거나 제련된 알루미늄이 멕시코를 통해 도착할 경우 10% 관세가 적용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오늘 수요일부터 적용된다.

Bloomberg 기사

[주택]**CNBC: Mortgage refinance demand drops further, despite homeowners sitting on \$17 trillion in equity****모기지 재융자 수요 계속 하락**

- 지난주까지 주택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가 연속 4주 하락하며 2% 감소했다.
- 주택 소유자들이 올해 1분기 말 현재 17조 달러의 주택 에퀴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융자 수요는 하락하고 있다.
-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지난주에 7%로 이전 주 7.03%보다 줄었다.

CNBC 기사

[에너지]**Bloomberg: US Natural Gas Bulls Finally Get Some Good News****미 천연가스 가격 올 하반기에 오른다**

- 부진한 겨울 시즌 가격에서의 반등을 몇 달간 기다려온 미 천연가스가 이번 주에 '희소식'을 받았다.
- 화요일 연방 에너지정보국의 예측에 따르면 전력 가동과 히팅, 요리 등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3분의 1 이상 상승할 것이라

는 것.

-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월 이후 mBtu당 3달러를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기록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왔고,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저장 시설에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
- 현재 미 전역에 에어컨디셔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스 저장 수준은 지난 5년 평균보다 18% 높은 수준이다.

Bloomberg 기사

WSJ: OPEC Holds Oil-Demand View Steady, Expects Faster Economic Growth

OPEC, '석유 수요 전망 안정적, 더 빠른 경제 성장 기대'

-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주요 경제의 견고한 모멘텀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 OPEC은 최근 월간 보고서에서 2024년 석유 수요가 하루 220만 배럴 증가하여 총수요가 하루 평균 1억 4,4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확인했다. 내년 수요 증가 예상치도 하루 180만 배럴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 특히 미국에서 항공 여행이 여름 동안 주요 수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의 제조업과 석유화학 활동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 OPEC은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석유 수요 수준을 뒷받침할 것이라 전망했다.

WSJ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Consumer Inflation Stays Tepid, Factory-Gate Prices Continue to Fall

중국, 소비자 물가 미지근하고 공장 출고가도 하락세

- 중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에도 미지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공장 출가는 계속해서 하락해 베이징의 소비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0.4% 상승률을 밑도는 수치이며, 5월의 0.3% 상승률과 비교해도 둔화된 모습이다.

- 반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며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WSJ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0.7% 하락률보다 더 큰 폭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hoppers Have Fewer Choices. Brands and Retailers Like It That Way.

소매업체들의 '선택의 폭 줄이기' 전략

- 장난감부터 티셔츠까지, 많은 브랜드와 소매업체들이 적은 것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논리로 쇼핑객의 선택 폭을 줄이고 있다.
- 일부 기업은 팬데믹 이전부터 제품군 축소를 시도해 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다양한 품목의 재고 확보가 어려워지자, 소매업체들은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품목에 집중하기 위해 제품 라인을 축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Hanesbrands, Dollar General, Under Armour, Deckers Outdoor 등의 기업들은 수요가 높은 품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기업들은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 접근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WSJ 기사

WSJ: Dollar General Streamlines Supply Chain Behind Its Sprawling Store Network

달러 제너럴, 공급망 단순화로 재고 관리 강화

- 할인 소매업체 달러 제너럴(Dollar General)은 미국 내 2만개 이상의 매장에서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있다.
- 회사는 효율성을 높이고 도난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매장 선반에 두는 제품의 수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통 네트워크를 재조정하고 창고 분류 과정을 변경하여 상품이 매장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고 경영자 Todd Vasos는 지난 30일 실적 발표회에서 "재고가 입고되면 선반에 바로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WeWork to Convert NYC Spot Into First-of-Its-Kind Lounge 위워크, 맨해튼 오피스 타워에 공용 업무 라운지 오픈 예정

- 위워크(WeWork)는 맨해튼의 한 오피스 타워에 있는 공간을 모든 입주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업무 라운지로 바꿀 예정이며, 이는 코워킹 스페이스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 575 렉싱턴 애비뉴에 입주한 회사들과 위워크 회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 바, 회의실, 야외 테라스가 있는 약 1,400제곱미터 규모의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위워크는 그동안 190건 이상의 임대 계약을 재협상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70여 곳의 지점을 철수하는 등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모색해 왔다. 올해 초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위워크는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John Santora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

Bloomberg 기사

CNBC: Walmart is opening five automated distribution centers as it tries to keep its grocery dominance 월마트, 5개의 자동화 유통 센터 오픈 예정

- 월마트는 효율성 향상과 온라인 식품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전국에 5개의 자동화된 신선식품 유통 센터를 오픈할 것이라고 수요일에 발표했다.
- 이 새로운 시설들은 평균 약 70만 평방 피트의 크기이다. 냉장 및 냉동 구역에는 딸기, 치킨 너겟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들이 보관되며, 해당 상품을 검색하는 자동화 설비도 도입될 예정이다. 상품들은 추후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고객의 전자상거래 주문에 추가된다.
- 미국 최대 식료품점인 월마트는, 주차장에서 주문한 상품을 수령하거나 집으로 식료품을 배달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현대화하고 있다. 매장 픽업 및 배송은 최근 분기 미국 내 전자상거래 매출 22% 성장을 견인했다.

CNBC 기사

WSJ: Microsoft Quits OpenAI's Board Amid Antitrust Scrutiny MS, OpenAI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규제 당국의 조사 영향

- 마이크로소프트는 규제 당국의 조사에 따라 챗GPT 제작사인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이사회 참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는 OpenAI 이사회의 안정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다.
- Open AI는 지난해 최고경영자의 해고와 복직, 그리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지위를 얻어 OpenAI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의 파트너십이 사실상의 합병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참관인 지위가 일부 반독점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역할을 방어하기보다는 그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미국 경제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7월)

원본: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금리인하 말 아낀 파월에 美국채 금리↑...9월 기대 여전히 70%대

금융시장 반응 대체로 '잠잠'...인플레이션 진정 '추가 증거' 6월 CPI 주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가운데,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미래 조치의 시기에 관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